



드루파, 9월부터 5개 대륙에서 40여 이벤트 시작

드루파 2016 성공 개최 위해 총 44만km 월드투어

드루파가 9월부터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이고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진행되는 드루파 2016 월드 투어를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월드 투어는 프레스 인터뷰를 비롯한 프레젠테이션, 프레스 컨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된다.

자료제공 | 드루파

전문가 미팅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까지

40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모든 종류의 드루파 이벤트는 2016년 2월까지 인쇄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와 혁신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인쇄산업 대표 전시회로서 인쇄에서부터 크로스미디어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관련 비즈니스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이벤트는 전문가들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미팅에서부터 하루 동안 수백 명의 참가자가 인쇄산업 프레젠테이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직될 것이다.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통합의 중심 역할

드루파의 사빈 겔터만 이사는 “드루파 월드 투어는 광고, DM, 온라인 캠페인, 후원 활동, PR 및 언론 활동의 마케팅 혼합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이번 이벤트의 기능에 대해 강조했다. “인쇄산업에서 특별한 흥미와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화

의 공간이라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물론 방문객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부가적인 장점이다”고 덧붙였다. ‘드루파 대사’ 들은 이번 월드투어의 마지막까지 약 44만km를 비행할 예정인데, 이는 지구를 거의 11번 도는 것과 같은 거리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 활동에 초점

월드 투어 대표단은 9월 12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IGAS 2015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14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그래프 엑스포의 한 세션으로 북아메리카 지역 미디어를 위한 프레스 컨퍼런스를 곧바로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 14개 국가와 8개의 드루파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진다. 새로운 드루파 월드 맵은 프린트 프로모션 워크숍에서 알마티(카자흐스탄)를 포함키로 했다.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오클랜드(뉴질랜드)로서 드루파 개최지인 뒤셀도르프에서 약 1만800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